

## 자유학기제 현장들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 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 경기 셋별중 ‘영어 그림책 실험실’

# 그림책으로 여는 色다른 영어세계



책 'Macbeth'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연출하고 있는 셋별중 학생들. / 셋별중 학생들이 만든 꿈명함과 꿈명함 받침대. 셋별중 제공

경기 셋별중의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영어 그림책 실험실(English Picturebook Lab)’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어 그림책을 읽고 책에 대한 감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실력을 골고루 기른다.

이 수업을 기획한 손민영 경기 셋별중 영어 교사는 그림책을 읽은 뒤 등장인물의 성격을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책 표지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력, 심미적 역량을 높였다.

‘영어 그림책 실험실’ 수업은 블록타임으로 묶인 매주 화요일 5, 6교시에 총 18차시로 진행됐다.

### 책 속에서 찾는 나의 꿈

독서교육이라고 하면 국어 교과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영어 교과도 예외는 아니다. 다양한 어휘표현으로 가득한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외국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 하지만 정규 수업 시간에 독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손 교사가 자유학기 영어 수업에 독서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킨 이유다.

먼저 1~2차시는 스쿠버다이버, 스모선수, 영화배우 등 수많은 꿈을 가진 윌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 ‘Willy the Dreamer’를 읽고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보는 시간. 1차시에 학생들은 스스로 윌리가 되어 꿈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름·직업·연락처 등이 영어로 적힌 ‘꿈 명함’을 만든다. 2차시에는 도서관으로 이동해 영어 그림책을 훑어보며 꿈을 실현하는 데 영감을 주는 문구를 찾는다. 이 문구를 종이컵에 적고, 종이컵 바닥에 메모꽂이용집계를 붙이면 ‘꿈 명함 받침대’도 완성. 학생들은 명함과 받침대를 만들어보며 꿈에 한 발 가까워진다.

3~4차시에는 그림책을 활용해 게임을 하고, 뒷이야기를 상상해 만화도 그려본다. 먼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엄마가 화가 나서 집을 떠나자 나머지 가족들이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책 ‘Piggybook’을 읽는다. 이어 ‘책 수다(Book Chat)’ 게임을 한다. ‘I like this character the most because...(나는 이 등장인물이 가장 좋아. 왜냐하면...)’처럼 생략된 문장이 적힌 카드를 랜덤으로 뽑고 문장을 잘 완성시켜 말하면 해당 카드를 가져가는 것. 더 많은 카드를 가져간 학생이 승리한다. 또 그림책의 뒷이야기를 네 컷 만화로 그려본다. 손 교사는 “아빠와 아이들이 다시 게을러져서 엄마가 영원히 집을 떠날 것이라고 상상한 학생도 있었다”면서 “뒷이야기를 그려보며 책의 메시지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상상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림책, 연극으로 리메이크!

5~10차시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시간. 먼저 5~8차시에는 책 ‘Macbeth’의 주요장면을 연극으로 표현해본다. 이 수업은 지역사회 도움 받아 파견된 연극 전문 강사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강사로부터 간단한 연극 연출법을 익히고, 미리 준비된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책 속 한 장면을 자유롭게 연출한다. 직접 영어 대사를 읊으며 연기도 했다. 손 교사는 “학생들은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 파란 천을 활짝 펴서 흔드는 등 교사도 깜짝 놀랄 만큼 뛰어난 연출실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9~10차시에는 책 ‘Voices in the park’의 표지만 보고 내용을 추측해 ‘이야기 만들기’ 활동을 해본다. 한 명씩 돌아가며 한 문장의 이야기를 지어 전체 스토리를 완성하는 것. 숲 속에 아이 두 명이 서있는 표지 그림 때문에 ‘소녀와 늙은 나무의 슬픈 사랑’이라는 실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긴 했지만, 직접 이야기를 만드는 활동 자체에 학생들은 큰 흥미를 보였다.

사실 이 책은 같은 사건을 경험한 네 명의 인물들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각각의 시점에서 서로 다르게 묘사한 작품. 책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등장인물인 셈이다. 이에 등장인물의 성격, 외모 등을 상상하여 그림과 영어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등장인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도 기르게 된다.

### 시를 쓰는 배짱이가 되어...

11~12차시에 학생들이 읽은 책 ‘Frederick’은 동화 ‘개미와 배짱이’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결말은 정반대다. 배짱이처럼 일을 하지 않고 봄을 만끽하던 주인공 프레드릭은 겨울이 오자 봄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시를 지어 오히려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 학생들은 책을 읽으

며 예술의 의미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직접 '다이아몬드 영시'도 써본다. 다이아몬드 영시란 하나의 주제어에서 시작해 그 단어를 묘사하는 형용사·동사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주제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로 마무리하는 시를 말한다. 가령 monster(괴물)가 주제어라면 horrible(끔찍한), scary(무서운) 등의 형용사를 나열한 뒤 creature(피조물)라는 단어로 시를 끝내는 식. 1행은 명사 하나, 2~6행은 형용사·동사 여러 개, 마지막 7행은 다시 명사 하나만 써서 시가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간단한 영단어만으로 시를 지을 수 있어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장점.

13~14차시에는 책의 표지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본다. 15~16차시에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만의 그림책을 직접 만들어본다. 손 교사는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림책은 5장 정도로 짧게 만들도록 하고, 이야기의 열개는 사전에 짜오도록 했다”면서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영어 그림책을 몸소 만들어보며 영어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17~18차시는 가을 야외 독서활동 시간. autumn(가을)을 소재로 율행시를 짓고 단풍 잎으로 예쁘게 꾸민다. 손 교사는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시를 낭송하며 가을을 만끽했다”면서 “단순히 그림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수업을 즐기게 되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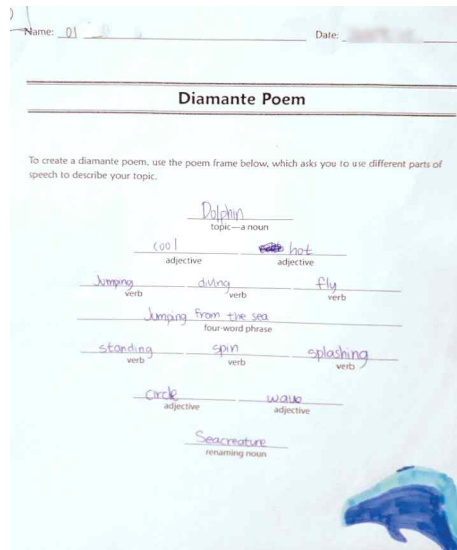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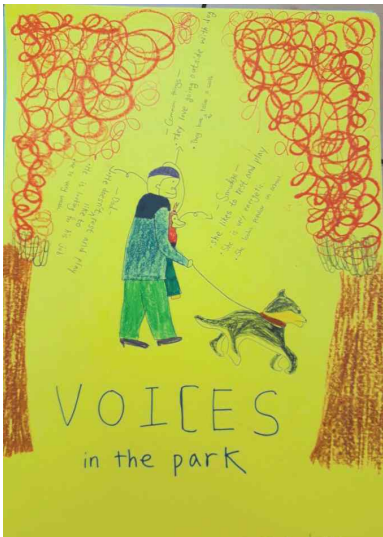
손민영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 독서,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

‘영어 그림책 실험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의 한 장면을 연극으로 연출하기 △책 표지 디자인하기 △나만의 영어 그림책 만들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손민영 경기 셋별중 영어 교사는 “영어 그림책을 통해 그림과 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상황에 딱 맞는 영어 표현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은 물론, 영미권 문화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어 그림책 실험실’ 수업을 이끈 손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셋별중 학생들이 분석한 ‘Voices in the park’ 등장인물. 셋별중 제공  
셋별중 학생들이 직접 지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영시. 셋별중 제공



셋별중 학생들이 직접 만든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영어 그림책. 셋별중 제공

## Q.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내 수업의 모토는 ‘FunFun하게, 뽀뽀하게’이기 때문에 수업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요소를 많이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영어 그림책은 매우 좋은 수업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 역시도 그림책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처음 도전해보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먼저 독서교육 선도교사 연수를 들으며 영어 수업에 독서활동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또 1년 동안은 학습에 유익하면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 할만한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영어 그림책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 Q.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교사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운영된다. 짝 짜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책임에 대한 부담도 따른다. 특히 시험도, 성적 산출도 없기 때문에 교사가 고안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림책이 너무 쉬운 것은 아닐까?’ ‘중1 때 활동 중심 수업을 하다가 중2 때 갑자기 이론 중심 수업에 적응하려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등의 생각이 늘 공존했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영어를 더 공부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책 ‘Macbeth’를 기반으로 한 연극 연출 활동 중, 학생들은 책 맥베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못했다. 그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던 차, 마침 학교에서 독서 골든벨 퀴즈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사서 교사와 협의하여 영어로 쓰인 맥베스 책을 대회 대상 도서 목록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대회 참여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맥베스를 완독하며 영어 독해 실력을 높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Q. 수업의 효과는?

학생들이 수업을 무료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또 ‘틀려도 괜찮으니 일단 써봐라’ ‘틀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이야기해봐라’고 늘 강조했던 덕분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영어 표현을 해보는 과정에서 말하기·쓰기 능력을 골고루 기르게 됐다.

“영어 시간이 이렇게 재밌던 적은 처음”이라고 말하는 학생들, 두 뺨이 상기될 정도로 열심히 단어를 찾는 학생들, 쉬는 시간에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며 교사 역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손민영 경기 셋별중 영어 교사

## 자유학기,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꾸준히 유지시켜주고, 또 탄탄한 영어 기본기를 갖추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낼 수 있는 활동을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수시로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유학기제의 평가 방식 역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훌륭한 도구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며 실시하는 자기평가, 그리고 친구들의 활동을 검토하는 동료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긍정적인 욕심 때문에 스스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

### 학생들의 영어 실력 차이를 극복하려면?

영어 교사로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 격차는 항상 어깨를 무겁게 한다. 하지만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꼭 영어 작문이나 독해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친구들의 의견을 잘 조율한다거나,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거나 등의 학생 저마다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장점을 교사가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칭찬해준다면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영어에 대한 강력한 학습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다양한 수준의 활동을 골고루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수업에서 책 표지 디자인하기, 단어를 나열하여 영시 창작하기 등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준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교사와 주변 친구들의 적절한 도움까지 더해진다면, 차츰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향상되어 가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언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교사들 역시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에 느꼈던 막막함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새로운 수업 구상 등이 무거운 부담으로 따라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동료 교사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개발하고, 연수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확장해간다면 다음 자유학기는 더욱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행복해져야 학생들도 행복해진다.